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시균·김정우*

I. 서론

1980년대 이래 세계적으로 노동유연성의 확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기업 및 국가차원에서 시도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높여나갔다.

그러나 노동유연화가 노동비용 자체의 감소와 함께 노동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큰 금융적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들은 많이 있어왔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유연성, 그 중에서도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Atkinson(1984)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유연화론에 따르면, 기업은 기능적 유연성, 수량적 유연성, 금융적 유연성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유연성을 추구한다. 이때 기능적 유연성은 개별 노동자가 다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 이시균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lsk@kli.re.kr).

김정우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kjw@kli.re.kr).

을 의미하고 수량적 유연성은 총량 고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단기간에 필요노동력과 실제 고용인력을 일치시키는 능력이며, 금융적 유연성은 임금이나 노동비용을 기업의 성과와 연동시키는 능력을 뜻한다.

이때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한 기업은 손쉽게 총노동자수를 증가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단기간에 정확하게 필요노동력과 유희고용인력을 일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등)과 노동시간의 배분(변형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수량적 유연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주장들은 크게 수량적 유연성의 증대가 기업성과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낙관론과 오히려 기업성과를 낮추거나 적어도 그대로 기업성과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회의론이 있다.

먼저 낙관론의 논리를 살펴보면, 수량적 유연성의 확대는 우선 임금 및 부가급여, 더 나아가 채용 및 해고비용 같은 직·간접적인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용규모를 경기자체의 변동에 직접 조응할 수 있게 하여 시장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이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회의론은 수량적 유연성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잠재적 노동비용이 증가된다고 본다. 이때 노동비용은 단순히 임금이나 부가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채용이나 직업훈련 등에 드는 고정비용, 그리고 단위노동생산성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낮은 이직이나 낮은 노동생산성은 잠재적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경영성과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 실증연구 결과는 낙관론, 혹은 회의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주지 않고 있다.

Valverde, M., Tregaskis, O. and Brewster, C.(2000)의 연구에 따르면 임시직 노동자의 규모(수량적 유연성)와 기업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Michie, J., Sheehan, M.(2001)의 경우에는 단기간 계약, 고용안정에 대한 고용주의 확약부재, 낮은 수준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로우로드(Low-Road) 관행들은 기업성과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ollen(1996)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낮은 이직이나 낮은 생산성 등은 결국 전체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과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 권순식(2004)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은 기업의 노무비용을 절감하고 수량적 유연성 대처 능력을 증대시키지만 전반적인 이직률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하락시켜 결국 비정규직 고용비용과 영업이익률은 서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I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3년과 2004년에 조사된 「사업체 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사업체 패널자료」는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더불어 사업체 특성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업체 패널자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기업성장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표 1>은 2004년도 「사업체 패널자료」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종속변수로는 1인당 인건비, 고용조정 여부, 노동생산성, 1인당 당기순이익으로 하였으며, 설명변수는 노동력 특성변수(평균연령, 평균근속연수, 여성비율, 생산직 비율, 서비스직 비율), 사업체 특성변수(종업원 규모, 회사연령, 단일사업장 여부, 경영체제, 외국인 지분율, 산업더미, 유형고정자산), 시장환경 변수(품질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 경쟁기업수 변화, 시장점유율 변화, 수요변화), 그 밖에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노조유무, 직업훈련 실시여부를 포함하였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기업은 약 49%였으며,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약 37세였고, 평균근속연수는 6.25년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여성비율은 약 27%, 생산직 비율은 42%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종업원 규모는 약 312명으로 나타났고 회사연령은 약 20년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민간서비스업이 29%로 나타났다.

「사업체 패널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가구조사 자료와는 달리 비교적 결측치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측치는 분석결과의 효율성을 크게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분석모형에 따라 실증결과도 완전히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관찰된 정보를 이용하여 결측치를 추정하고 이를 분석자료에 포함하였다. 사업체 특성에 해당하는 노동력 구성과 산업, 노조유무 변수를 포함한 회귀모형을 통해 해당변수의 결측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모형은 2004년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기업성장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1인당 인건비, 노동생산성, 1인당 당기순이익으로 하는 통상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이 고용조정에

1) 그는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명시적 이득(노무비 절감, 고용유연성 확보)과 잠재적 비용(노동생산성 감소, 자발적 이직 증가)을 구분하여 이 이득과 비용의 크기에 따라 최종적인 기업 성과가 영업이익률로 표현될 것이라 가정했다.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고용조정 여부로 한 프라빗 모형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2003년과 2004년의 자료를 패널화하여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가 기업성
 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의 식으로 표현되는 모형을 이용한다.

<표 1> 기술통계량

	정 의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비정규직 활용여부	1=비정규직 활용, 0=비정규직 활용하지 않음.	2,164	0.49	0.4999359
1인당 인건비	2003년 총인건비를 종업원 규모로 나누고 로그를 취하여 측정	1,679	10.10	0.9637367
고용조정 여부	명예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전출, 분산, 외주 등으로 고용조정 경험이 있으면 1, 아니면 0	2,164	0.34	0.4735427
노동생산성	2003년도 매출액을 종업원 규모로 나누고 로그를 취하여 측정	1,799	5.42	1.720672
1인당 당기순이익	2003년도 당기순이익을 종업원 규모로 나누고 로그를 취하여 측정	1,364	2.15	2.181127
평균연령	근로자 평균연령	1,989	37.01	5.689877
평균근속	근로자 평균근속	1,979	6.25	4.022665
여성비율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1,996	27.31	23.80095
생산직 비율	전체 노동력에서 생산직이 차지하는 비율	1,989	41.64	36.216
서비스직 비율	전체 노동력에서 서비스직, 영업직이 차지하는 비율	1,986	15.20	24.86639
회사연령	회사 창립일을 기준으로 한 회사연령	1,992	20.71	15.73104
단일사업장 여부	1=단일 사업장, 0=복수사업장	2,154	0.56	4.96E-01
종업원 규모	종업원 규모	1,998	312.34	1165.877
경영체제	1= 소유경영체제, 0= 전문경영체제 및 기타	2,111	0.46	0.4981524
외국인 지분율	2003말 외국인 차지하는 지분율	1,968	6.18	19.89762
농림어업, 광업	농림어업과 광업	2,164	0.01	0.1003377
제조업	제조업	2,164	0.41	0.4915843
전기가스수도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2,164	0.01	0.0980537
건설업	건설업	2,164	0.06	0.2419084
운수통신업	운수업과 통신업	2,164	0.11	0.3076815
금융보험업	금융업과 통신업	2,164	0.07	0.2548317
기타공공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2,164	0.05	0.2129613
기타민간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 기관	2,164	0.29	0.4522334
경쟁기업수 변화	지난 3년간 경쟁기업수의 변화; 1=매우감소, 5=매우 증가	1,979	3.39	1.720058
시장점유율 변화	지난 3년간 주력제품의 시장점유율의 변화; 1=매우감소, 5=매우 증가	1,981	3.12	1.247259
수요변화	지난 3년간 주력제품의 수요변화; 1=매우감소, 5=매우 증가	1,977	3.23	1.558081
품질기술경쟁력	제품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 1=전혀 그렇지 않다, 5=전적으로 그렇다	1,969	3.57	0.6681972
가격경쟁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1=전혀 그렇지 않다, 5=전적으로 그렇다	1,967	3.00	0.6962315
직업훈련 실시여부	1=실시, 0=미실시	2,156	0.68	0.4669556
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에 로그를 취하여 측정	1,262	11.41	2.279338
노조유무	1=노조가 있는 사업장, 0=무노조 사업장	2,164	0.24	0.4242296

자료 : 사업체 패널 3차년도 원자료(2004년).

$$\ln Y_{it}/Y_{it-1} = \alpha_0 + \alpha_1 L_{it} + \alpha_2 F_{it} + \alpha_3 M_{it} + \alpha_4 Z_{it} + \alpha_5 \ln(E_{it}/E_{it-1}) + u_{it}$$

여기서 Y 는 1인당 인건비, 고용량, 노동생산성, 1인당 당기순이익이다. L 은 노동력 특성을 지칭하며, F 는 사업체 특성, M 은 시장환경, Z 는 노조유무 등 기타 변수를 의미한다. E 는 t 기에 사업체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수준이다. 이 모형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가 기업성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로버스트 추정모형(robust estimation)을 도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체 자료는 가구자료에 비해 소규모 표본이면서도 이상값(outlier)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상값은 최소자승법에 비효율적이고 편의를 가진 추정치를 도출한다. 이상값은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치를 이상값 방향으로 쏠리게 하고 추정치의 분산을 부풀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로버스트 추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이다. 로버스트 추정모형은 이상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된 관찰치를 배제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²⁾ 우리는 로버스트 추정모형을 통해 이상값에 의해 야기된 비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거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표 2>는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인건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의 총인건비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업체는 15,400백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체는 5,410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매출액이나 노동생산성도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업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경우에 인건비 수준이 높고 매출액이나 노동생산성, 당기순이익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비정규직을 대규모 사업체에서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엄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다변수 분석이 필요하다.

<표 3>은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1인당 인건비, 고용조정 여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해 추정된 결과이며, (모형 2)는 로버스트 추정결과

2) 자세한 분석방법은 Hamilton(1991) 참조.

<표 2>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기업성과와의 관계

(단위 : 백만원)

	전 체	비정규직 활용	비정규직 활용하지 않음
인건비	9,895	15,400	5,410
1인당 인건비	42	52	34
고용조정 여부	0.339	0.436	0.248
매출액	338,877	432,715	263,243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	1,122	1,222	1,041
당기순이익	18,909	28,334	11,155
1인당 당기순이익	55	122	-0.618

자료 : 사업체 패널 3차년도 자료(2004년).

<표 3> 비정규직 활용여부가 기업성과(인건비, 고용조정)에 미치는 효과 I

	1인당 인건비(모형 1)		1인당 인건비(모형 2)		고용조정 여부(모형 3)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평균연령	-0.007	0.048	-0.010	0.000	-0.006	0.315
평균근속	0.018	0.000	0.025	0.000	-0.006	0.534
여성비중	-0.004	0.001	-0.004	0.000	0.003	0.084
생산직 비중	-0.006	0.000	-0.005	0.000	-0.002	0.053
서비스직 비중	-0.004	0.000	-0.004	0.000	0.000	0.994
회사연령	0.002	0.058	0.000	0.943	0.002	0.428
단일사업장 여부	-0.046	0.254	-0.017	0.353	-0.508	0.000
종업원 규모	0.000	0.026	0.000	0.223	0.000	0.009
종업원 규모제곱	0.000	0.083	0.000	0.002	0.000	0.030
경영체제	-0.154	0.000	-0.060	0.001	-0.295	0.000
외국인 투자비율	0.002	0.020	0.001	0.000	0.000	0.899
농림어업, 광업	0.267	0.018	0.241	0.002	-0.033	0.909
전기가스수도업	0.207	0.111	0.215	0.007	-0.572	0.079
건설업	-0.099	0.184	-0.068	0.056	-0.096	0.477
운수통신업	-0.217	0.000	-0.155	0.000	0.054	0.632
금융보험업	0.240	0.006	0.257	0.000	-0.239	0.072
기타공공서비스업	0.293	0.007	0.226	0.000	-0.317	0.045
기타민간서비스업	-0.027	0.579	-0.051	0.022	-0.199	0.021
경쟁기업수 변화	-0.036	0.115	-0.024	0.018	-0.029	0.474
시장점유율 변화	0.005	0.861	0.002	0.882	-0.066	0.136
수요변화	0.035	0.174	0.011	0.308	0.013	0.761
품질기술경쟁력	0.029	0.273	0.005	0.686	-0.048	0.344
가격경쟁력	-0.065	0.011	-0.060	0.000	-0.007	0.883
직업훈련 실시여부	0.014	0.677	0.080	0.000	-0.352	0.000
유동고정자산	0.031	0.034	0.015	0.006	-0.081	0.000
노조유무	0.088	0.068	0.071	0.001	0.009	0.914
고용조정 여부	0.080	0.046	0.041	0.015		
비정규직 활용여부	-0.028	0.511	-0.022	0.183	0.402	0.000
상수항	10.469	0.000	10.777	0.000	1.671	0.000
관찰사례수		2164		2164		2164
R ²	0.205					
로그우도함수값					-1256.12	

주 : 산업더미의 기준변수는 제조업.

자료 : 사업체 패널 3차년도 자료(2004년).

이다. (모형 3)은 프라빗 분석에 의해 추정된 결과이다. 우선 1인당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활용여부는 1인당 인건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버스트 추정방식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최소자승법의 추정결과보다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1인당 인건비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1인당 인건비간에 부(-)의 신호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업체일수록 고용조정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과 고용조정 여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는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가 1인당 인건비와 고용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4)는 1인당 인건비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고 (모형 6)은 고용수준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최소자승법의 추정결과이다. (모형 5)와 (모형 7)은 1인당 인건비 변화와 고용수준 변화를 종속변수로 한 로버스트 추정모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선 결과와는 달리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는 1인당 인건비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 비정규직 고용수준이 증가하면 1인당 인건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값의 영향을 제거한 로버스트 모형에서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는 1인당 인건비의 변화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을 많이 활용할수록 인건비를 절감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고용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표 3>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비정규직 고용수준과 뚜렷하게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용조정의 대상이 주로 비정규직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수준의 증가 역시 비정규직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노동생산성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이다. (모형 8)과 (모형 10)은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이며, (모형 9)와 (모형 11)은 로버스트 추정방식을 활용한 결과이다. Atkinson의 중핵-주변부 모형에 의거하면 비정규직은 숙련수준이 낮은 노동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낮추게 될 것이다. 실제 분석결과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8)에서 비정규직 활용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상값의 영향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추정을 한 (모형 9)에서 비정규직 활용과 노동생산성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활용과 당기순이익과의 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모형 10)과 (모형 11)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여부가 당기순이익에 부(-)의 신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활용에 찬성하는 연구자

들은 비정규직 활용이 수요가 불확실한 시장환경에서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증가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본 실증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4>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가 기업성과(인건비, 고용량)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1인당 인건비 변화 (모형 4)		1인당 인건비 변화 (모형 5)		고용량 변화 (모형 6)		고용량 변화 (모형 7)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평균연령	0.005	0.308	0.000	0.893	0.000	0.950	0.000	0.626
평균근속	0.003	0.675	0.002	0.207	0.000	0.935	0.000	0.710
여성비중	0.002	0.060	0.001	0.000	-0.001	0.145	-0.001	0.005
생산직 비중	0.000	0.641	-0.001	0.000	0.003	0.000	0.001	0.000
서비스직 비중	-0.002	0.067	-0.001	0.000	0.005	0.000	0.002	0.000
회사연령	-0.001	0.529	0.000	0.983	0.002	0.025	0.000	0.743
단일사업장 여부	0.007	0.900	-0.028	0.003	0.004	0.885	0.027	0.003
종업원 규모	0.000	0.01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종업원 규모제곱	0.000	0.111	0.000	0.155	0.000	0.000	0.000	0.000
경영체제	-0.046	0.338	0.006	0.462	0.001	0.974	-0.016	0.064
외국인 투자비율	0.002	0.099	0.000	0.606	0.000	0.790	0.000	0.364
농림어업, 광업	-0.138	0.590	-0.115	0.003	0.143	0.154	0.102	0.007
전기가스수도업	0.152	0.244	0.075	0.063	0.131	0.151	0.012	0.757
건설업	0.173	0.078	0.091	0.000	-0.081	0.207	-0.008	0.676
운수통신업	0.039	0.626	-0.007	0.638	-0.022	0.586	-0.037	0.012
금융보험업	-0.222	0.003	-0.256	0.000	0.224	0.000	0.205	0.000
기타공공서비스업	-0.104	0.244	-0.138	0.000	0.110	0.008	0.124	0.000
기타민간서비스업	-0.105	0.097	-0.094	0.000	0.063	0.074	0.089	0.000
경쟁기업수 변화	0.019	0.513	-0.009	0.098	0.005	0.769	0.011	0.029
시장점유율 변화	0.064	0.055	0.000	0.983	0.041	0.013	0.029	0.000
수요변화	-0.002	0.938	-0.002	0.746	0.012	0.372	-0.003	0.616
품질기술경쟁력	0.009	0.792	-0.010	0.132	0.028	0.131	0.020	0.002
가격경쟁력	-0.058	0.074	-0.005	0.370	0.002	0.891	-0.010	0.100
직업훈련 실시여부	0.021	0.657	0.022	0.010	0.067	0.007	0.011	0.200
유동고정자산	0.007	0.680	-0.003	0.199	-0.060	0.000	-0.001	0.582
노조유무	0.099	0.089	0.060	0.000	-0.066	0.007	-0.027	0.014
고용조정 여부	0.090	0.069	0.003	0.751				
비정규직 활용여부	-0.086	0.073	-0.061	0.000	0.181	0.000	0.086	0.000
상수항	-0.301	0.377	0.240	0.000	0.115	0.639	-0.274	0.000
관찰사례수		2164		2164		2164		2164
R ²	0.072				0.206			

주 : 산업더미의 기준변수는 제조업.

자료 : 사업체 패널 2, 3차년도 자료(2003 ~ 2004년).

<표 5> 비정규직 활용여부가 기업성과(노동생산성,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노동생산성(모형 8)		노동생산성(모형 9)		당기순이익(모형 10)		당기순이익(모형 11)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평균연령	-0.014	0.004	-0.012	0.004	-0.023	0.000	-0.024	0.000
평균근속	0.033	0.000	0.030	0.000	0.039	0.000	0.031	0.000
여성비중	-0.004	0.000	-0.003	0.002	-0.004	0.008	-0.004	0.003
생산직 비중	-0.015	0.000	-0.015	0.000	-0.017	0.000	-0.016	0.000
서비스직 비중	-0.010	0.000	-0.011	0.000	-0.011	0.000	-0.010	0.000
회사연령	0.006	0.001	0.007	0.000	0.006	0.031	0.005	0.009
단일사업장 여부	-0.754	0.000	-0.644	0.000	-0.465	0.000	-0.364	0.000
종업원 규모	0.000	0.295	0.000	0.557	0.000	0.682	0.000	0.657
종업원 규모제곱	0.000	0.448	0.000	0.474	0.000	0.613	0.000	0.997
경영체제	-0.157	0.005	-0.150	0.001	-0.117	0.074	-0.052	0.351
외국인 투자비율	0.005	0.000	0.004	0.000	0.005	0.002	0.003	0.009
농림어업, 광업	0.534	0.056	0.273	0.144	0.422	0.184	0.160	0.510
전기가수수도업	0.638	0.001	0.756	0.000	0.736	0.012	0.807	0.002
건설업	0.556	0.000	0.537	0.000	0.296	0.019	0.234	0.039
운수통신업	-0.904	0.000	-1.009	0.000	-1.346	0.000	-1.442	0.000
금융보험업	0.150	0.171	0.056	0.531	0.468	0.002	0.520	0.000
기타공공서비스업	-1.033	0.000	-1.157	0.000	-1.438	0.000	-1.562	0.000
기타민간서비스업	-0.318	0.000	-0.435	0.000	-0.389	0.000	-0.485	0.000
경쟁기업수 변화	-0.039	0.226	-0.031	0.212	-0.068	0.078	-0.065	0.047
시장점유율 변화	0.055	0.122	0.084	0.002	0.150	0.000	0.128	0.000
수요변화	0.062	0.069	0.056	0.032	0.035	0.401	0.036	0.277
품질기술경쟁력	-0.033	0.396	-0.032	0.311	0.022	0.659	0.041	0.321
가격경쟁력	-0.060	0.104	-0.054	0.056	-0.138	0.002	-0.108	0.003
직업훈련 실시여부	0.118	0.019	0.135	0.001	0.121	0.044	0.123	0.021
유동고정자산	0.259	0.000	0.273	0.000	0.300	0.000	0.264	0.000
노조유무	0.107	0.095	0.041	0.442	0.360	0.000	0.467	0.000
고용조정 여부	-0.043	0.410	0.011	0.795	-0.047	0.445	-0.066	0.216
비정규직 활용여부	-0.026	0.617	-0.089	0.027	-0.013	0.841	-0.028	0.593
상수항	4.199	0.000	3.805	0.000	0.570	0.293	0.886	0.021
관찰사례수		2164		2164		2164		2164
R ²	0.590				0.539			

주 : 산업더미의 기준변수는 제조업.

자료 : 사업체 패널 3차년도 자료(2004년).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수준이 노동생산성과 1인당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표 6>에서 (모형 12)와 (모형 14)는 최소자승법, (모형 13)과 (모형 15)는 로버스트 추정방식을 활용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모형에서 비정규직 고용수준과 노동생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1인당 당기순이익과도 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고용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동생산성과 1인당 당기순이익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최소자승법

보다 로버스트 모형에서 추정계수의 값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고용수준이 노동생산성이나 1인당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기순이익을 하락시키는 결과는 비정규직 활용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의 주장하는 바와는 다른 결과이다.

<표 6>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가 기업성과(노동생산성, 1인당 당기순이익)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노동생산성 변화 (모형 12)		노동생산성 변화 (모형 13)		당기순이익 변화 (모형 14)		당기순이익 변화 (모형 15)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추정계수	p-값
평균연령	-0.010	0.037	-0.008	0.000	-0.001	0.950	0.001	0.476
평균근속	0.005	0.496	0.003	0.108	0.007	0.583	-0.003	0.246
여성비중	0.001	0.375	0.000	0.514	-0.005	0.041	-0.005	0.000
생산직 비중	-0.003	0.003	-0.002	0.000	-0.007	0.000	-0.008	0.000
서비스직 비중	-0.006	0.000	-0.004	0.000	-0.006	0.009	-0.006	0.000
회사연령	-0.003	0.044	0.000	0.302	0.004	0.151	0.002	0.001
단일사업장 여부	-0.062	0.216	-0.021	0.069	-0.004	0.969	-0.015	0.429
종업원 규모	0.000	0.046	0.000	0.003	0.000	0.197	0.000	0.098
종업원 규모제곱	0.000	0.011	0.000	0.003	0.000	0.573	0.000	0.908
경영체제	0.012	0.780	0.026	0.016	-0.002	0.979	0.004	0.799
외국인 투자비율	0.001	0.374	0.000	0.924	0.000	0.907	0.000	0.266
농림어업, 광업	0.247	0.111	0.167	0.000	0.743	0.000	0.634	0.000
전기가수수도업	-0.039	0.707	0.032	0.526	0.448	0.003	0.312	0.000
건설업	0.131	0.165	0.017	0.454	0.099	0.512	-0.005	0.902
운수통신업	0.120	0.146	0.075	0.000	-0.464	0.009	-0.525	0.000
금융보험업	-0.180	0.042	-0.192	0.000	-0.380	0.020	-0.491	0.000
기타공공서비스업	-0.389	0.000	-0.380	0.000	-1.063	0.000	-1.154	0.000
기타민간서비스업	-0.157	0.015	-0.178	0.000	-0.590	0.000	-0.691	0.000
경쟁기업수 변화	-0.035	0.225	-0.014	0.025	0.019	0.725	-0.008	0.434
시장점유율 변화	-0.009	0.771	-0.002	0.805	0.008	0.903	0.010	0.384
수요변화	0.019	0.484	0.016	0.017	0.039	0.518	0.009	0.386
품질기술경쟁력	-0.079	0.023	-0.011	0.154	-0.036	0.612	0.000	0.989
가격경쟁력	-0.062	0.049	0.005	0.442	-0.065	0.296	-0.009	0.418
직업훈련 실시여부	-0.026	0.569	-0.004	0.737	-0.015	0.868	0.019	0.262
유동고정자산	0.017	0.375	-0.004	0.255	0.041	0.186	0.020	0.000
노조유무	0.128	0.018	0.055	0.000	-0.299	0.016	-0.176	0.000
고용조정 여부	-0.112	0.025	0.012	0.228	0.086	0.311	-0.016	0.331
비정규직 활용여부	-0.164	0.000	-0.068	0.000	-0.140	0.013	-0.041	0.001
상수항	1.024	0.004	0.531	0.000	-0.271	0.749	0.059	0.628
관찰사례수		2164		2164		2164		2164
R ²	0.076				0.074			

주 : 산업더미의 기준변수는 제조업.
 자료 : 사업체 패널 2, 3차년도 자료(2003 ~ 2004년).

V. 요약 및 결론

비정규직 활용을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장환경하에서 비정규직 활용으로 기업차원의 노동비용을 줄이고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연구자들은 반대로, 비정규직 활용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기업이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인 노동비용을 절감시키고 고용유연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의 낮은 이직과 낮은 생산성, 높은 산업재해 사고율과 채용 및 훈련, 해고 등에 들어가는 높은 거래비용을 고려하면 기업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비정규직이 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업체일수록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와 전체 고용량 수준의 변화가 정(+)의 관계를 보여 비정규직 노동력이 주된 고용유연성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비정규직 활용은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정규직 활용이 노동비용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혼란스럽게 나타났다.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노동비용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증가는 1인당 인건비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여부와 1인당 당기순이익간에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비정규직 고용수준의 변화와 1인당 당기순이익의 변화간에 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기업은 비정규직의 활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비정규직 활용은 단기적인 고용유연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노동생산성이나 이윤극대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 육성을 기업성장의 동력으로 간주하는 차별화 전략(High-Road Strategy)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하는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활용전략은 피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경영학 연구』 33 (3).
- Atkinson, J.(1984), “Manpower Strategies for Flexible Organisations,” *Personnel Management*, August.
- Hamilton, L. C.(1991), “How robust is robust regression?” *Stata Technical Bulletin* 2.
- Lepak, D. P., Takeuchi, R. and S. A. Snell(2003), “Employment Flexibility and Firm Performance: Examin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Employment Mode, Environmental Dynamism, and Technological Intensity,” *Journal of Management* 29 (5).
- Michie, J. and M. Sheehan(2001), “Labour Market Flexibil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12 (4).
- Nollen, S. D.(1996), “Negative Aspect of Temporary Employment,” *Journal of Labor Research* 17 (4).
- Valverde, M., Tregaskis, O. and C. Brewster(2000), “Labor Flexi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6 (4).